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북한의 정치엘리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HUANG SHIMENG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북한의 정치엘리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성 봉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HUANG SHIMENG

HUANG SHIMENG의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주	심	정치학박사	차 재 권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북한의 정치엘리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기존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7
II. 이론적 배경.....	10
1. 정치엘리트의 개념과 의미.....	10
2. 북한 정치체제와 정치엘리트.....	11
III. 김일성 시대 정치엘리트의 특성.....	16
1. 전문분야 분석.....	16
2. 연령별 분석.....	18
3. 출신 지역별 분석.....	19
4. 학력별 분석.....	21
5. 엘리트 교체상황.....	23
6. 소결.....	25

IV. 김정일 시대 북한 엘리트의 특성.....	26
1. 전문분야 분석.....	26
2. 연령별 분석.....	29
3. 출신 지역별 분석.....	31
4. 학력별 분석.....	32
5. 엘리트 세대교체.....	35
6. 소결.....	36
V. 김정은 시대 엘리트의 특성.....	39
1. 전문분야별 분석.....	39
2. 연령별 분석.....	42
3. 출신 지역별 분석.....	44
4. 학력별 분석.....	44
5. 엘리트의 세대교체.....	47
6. 소결.....	49
VI. 북한 세대별 정치엘리트의 변화 및 전망.....	52
1. 북한 엘리트의 특성 및 변화 추이.....	52
2.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전망.....	54
VII. 결론.....	56
참고문헌.....	60

〈표 목차〉

<표-1>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17
<표-2> 1980년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18
<표-3 >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출신 지역별 분포.....	20
<표-4 >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22
<표-5> 1940-195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23
<표-6> 2010년 제3차 당 대회까지 엘리트의 현황.....	24
<표-7> 1994년까지 부분 정치엘리트의 숙청과 강등 자료.....	24
<표-8>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27
<표-9>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29
<표-10>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출신 지역별 분포.....	31
<표-11> 2010년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33
<표-12> 1950-197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34
<표 13> 김정일 시대 노동당 중앙위원 교체 현상.....	36
<표-14> 1994년~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 숙청 상황.....	36
<표-15>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40
<표-16>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43
<표-17>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지역별 분포.....	44
<표-18> 2016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45
<표-19> 1950-197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46
<표-20> 김정은 시대 노동당 중앙위원의 교체 현상.....	47
<표-21> 2016년까지 부분 엘리트의 숙청 현황.....	49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Political Elite: Focused on the
Central Committee Members of KWP

HUANG SHIME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variety of North Korean political elite from 1980 to 2017. During this 37 years, North Korea has been governed by 3 top leaders which is the 1st generation leader Kim Il-Sung, the 2nd generation leader Kim Jung-Il, and the 3rd generation leader Kim Jung-Un.

As a socialist country, North Korea has strong control over its political elite and people, and it still retai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lin's socialism. Accordingly, the paper aims to the changes in political elit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see how they will affect the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Firstly, Chapter 1 basically set the purpose and conducted a review of the existing study and at the same time introduce the methods and scope of this paper. Then Chapter 2 present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elite in the socialist system and aims to derive the political elite in North Korea. And from Chapter 3 to Chapter 5 analyze the fluid changes in the political

elite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during the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ong-Un regime. Lastly, in Chapter 6,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summarized to co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elite and future development trends for each generation and to estimate future regime changes in North Korea.

Key word : North Korea political elite, Central committee member of DPRK, North Korea political system, Power structur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국가들 대부분은 체제 전환 과정을 통해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체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령의 유일 영도체계¹⁾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인 독재체제의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가 사망하게 되면 권력의 이양을 둘러싸고 권력 구조 내부에서 치열한 충돌 및 각종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로부터 순조로운 권력 승계를 이루었다. 이것은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북한은 당-국가체제²⁾로서 '수령체제'를 구축했다. 수령은 노동당, 정부 또는 군부의 권위를 넘어서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체제를 통해 북한 정치 엘리트들은 구조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제 유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체제는 전환의 가능성은 작지만, 시간에 따라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고지도자의 세대교체와 함께 북한 핵심 정치 엘리트들이

1) 정식 명칭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다. 1967년 6월 28일 김일성의 동생이자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김영주의 제청에 의해 당 중앙위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2)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의 주요 특성은 당-국가체제이다. 당-국가체제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큰 폭의 교체와 권력 기구의 재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독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변화 추세는 체제 내부의 변화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국가정책의 전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 발전에 따라 권력 구조에 있어서 정치 엘리트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상술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북한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엘리트 구조의 특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의 권력 구조와 당·군·정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정치 엘리트들의 변화 추이와 북한체제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과 전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선행된 북한 정치 엘리트에 관한 연구는 연구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식행사 및 주석단 서열에서 나타난 일부 핵심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적 사항의 연구와 북한 신문에 의해 밝혀진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전개된 인물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형철, 진희관, 심혜정, 간대욱, 김기용, 한승호 등이 있다. 두 번째 분류는, 사회 연결망(즉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하여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전개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강영은, 전현준, 이정현, 김영수, 박영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 기관 산하 각 분야 또는 특정한 영역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단체적 인물 연구이다. 이 분류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김갑식, 임정고, 김국후, 김성보, 권태희, 고창준, 김정민, 박승원 등이 있다.

각각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자들은 특색 및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진희관은 김정은 시대 이후 2015년까지를 시간적 분석 대상으로 북한의 권력 엘리트 변동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³⁾. 연구 대상은 노동신문 기사에 등장한 파워 엘리트이며, 연구 범위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엘리트의 이름이 거명된 615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엘리트의 변화 추이와 주석단 호명 순위의 변동과 더불어 주요 인물의 특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간대옥은 연구를 통해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정책에 대한 제시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직권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밝혔다⁴⁾. 연구는 의사결정방법, 지위방법 및 명선방법 등 세 가지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체제의 이념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조선 노동당 및 각 국가기관'과 더불어 북한이 공식적 권력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석단 서열'을 기준으로 권력 엘리트를 도출하였다. 또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 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을 전개하여 이들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적사항과 인물 분류 유형의 연구를 정리하면 보편적으로 주석단 서열, 공식사항 또는 북한 신문에서 등장한 개별 인물 집단들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석단 서열이

3) 진희관, "북한의 권력과 정치구조 ; 김정은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변동 연구-주요 인사의 노동신문 등장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2권(2015), pp. 91-110.

4) 간대옥,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 엘리트의 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2).

나 외부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소수 인물의 분석결과를 유일한 근거로 북한 전체 엘리트의 집단적인 성격 및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추론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석 범위를 특정 시기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를 보편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사회 연결망을 통한 분석이 진행된 두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영은은 북한 김정일 정권 아래 권력 엘리트의 분석을 통하여 권력 엘리트 구조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⁵⁾.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주석단 서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또는 권력 기관 고위직 점유 여부 등 3가지 기준에서 2개 이상 중첩적으로 포함되는 인물들이다. 본 논문에서도 권력 엘리트의 개인적 사회 배경의 분석을 다루었으나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의 연구의 차이는 방법론에 있어서 엘리트의 사회 배경뿐만 아니라 엘리트 간의 관계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들이 구성하는 권력 구조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정현은 김정일 와병 전후 북한의 주요 인물 연결망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⁶⁾. 이를 통해 해당 시기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활약한 주요 인물의 연결망 변화에 대해 분석과 전망을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두 시점을 나눠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시기는 김정일의 와병 전인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의 와병 이후인 2008년 상반기에서부터 2009년 1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사회 연결망을 통한 연구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매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특성상 일부 활동의 경우 수행자를 공개하지

5) 강영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국제정치, 2009).

6) 이정현, "북한 주요 인물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 : 김정일의 와병(臥病)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않는 경우도 많으며 또,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사회 연결망을 통한 연구는 다른 방법론의 연구와 비교하여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적 인물 연구가 진행된 세 번째 유형의 연구로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 엘리트의 변화를 추측한 김갑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⁷⁾. 이 연구는 김일성이 생존해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내각, 국방위원회, 인민군대, 주요 공장·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북한의 세대관과 간부선발 원칙을 정리하였으며, 권력 엘리트 교체의 정치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임정고는 조선노동당의 성립과 엘리트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 권력 엘리트의 변동 상황을 분석하였다⁸⁾. 엘리트접근방법을 통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과 정무원, 최고인민회의 등 권력 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가 성립되는 1945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성보는 북한 정치엘리트의 충원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기구별 엘리트의 경력 등 사회 배경 분석을 진행하였다⁹⁾. 분석 대상으로는 정부 기관에 속한 엘리트만으로 한정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핵심 권력 기구라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이 제외된 것이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적 범위를

7) 김갑식, "김정일 시대 권력 엘리트 변화," 『통일과 평화』 제1권2호(2009), pp. 103-139.

8) 임정고, "北韓 權力엘리트構造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3).

9) 김성보, "북한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경력 분석 - 정권기관 간부를 중심으로 (1945-50)," 『동북아연구』 제3권(1997), pp. 211-235.

1945년으로부터 1950년까지로 설정한 것 역시 한계라 할 수 있다.

고창준은 권력 엘리트의 역할을 소개하고 사회변동과 권력 엘리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¹⁰⁾. 연구의 특색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에 속한 엘리트에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였다. 또, 김정은 정권 이래 권력 엘리트의 변화양상에 주력하여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을 진행하였다.

단체적 인물 연구는 통상적으로 분석이 과거에 이루어져 분석 대상의 결여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자료의 부족에 의해 북한의 정치엘리트의 실태와 전망이 어려운 것 역시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유형의 연구 이외에 다른 유형의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발은 북한에서 노동당 당 대회로 선출된 정치 엘리트의 충원 양상을 둘러싼 연구를 진행하였다¹¹⁾. 분석 대상과 분석범위는 1946년 제1차 노동당 당 대회부터 1980년 제6차 당 대회까지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이다. 연구는 정치 엘리트들의 사회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분석의 결과를 통해 북한 정치엘리트와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김경훈의 경우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엘리트의 특성을 비교하였다¹²⁾. 본 논문은 정치엘리트의 특성 도출을 정치세력의 구분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엘리트의 응집력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10)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11) 김발, "北韓의 政治엘리트 充員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990).

12) 김경훈, "김정은 체제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안보·북한학과 국방학특, 2015).

선행된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의 정치엘리트에 대해 세대별로 분류하고, 엘리트 집단의 형성과정 또는 엘리트의 특성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김씨 부자의 3대 세습이 진행되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정치엘리트들의 변화양상과 추세를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분석대상에 있어서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기존연구의 경우 주석단서열이나 공식적인 활동에서 등장한 소수 인물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많았지만, 이 경우 북한 정치엘리트의 집단적인 동태 및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논문의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끄는 엘리트를 도출하기 위하여 북한 권력형성과정의 이념적 기반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정치엘리트의 사회 배경에 대한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 엘리트의 개인적 속성에 대한 분석도 자세히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엘리트의 개별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전문분야 분류, 연령대 분석, 학력별 분석, 출신 지역별 분석 및 정치적 경력 분석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엘리트의 집단적인 지속과 변화에 대한 비교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세대 구분을 진행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김일성 정권으로부터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까지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부상한 정치엘리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 노동당 제6차 당 대회부터 제7차 당 대회까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¹³⁾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넷째, 위에 서술한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매우 폐쇄적 사회주의체제의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내부에 대한 직접적 정보 수집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과 관련된 많은 국내외 문헌을 통해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방송 자료를 비롯한 전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서 주의할 점은 북한의 공식적인 자료는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의 검열을 거쳐 자료들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료와의 교차분석을 함께 진행하여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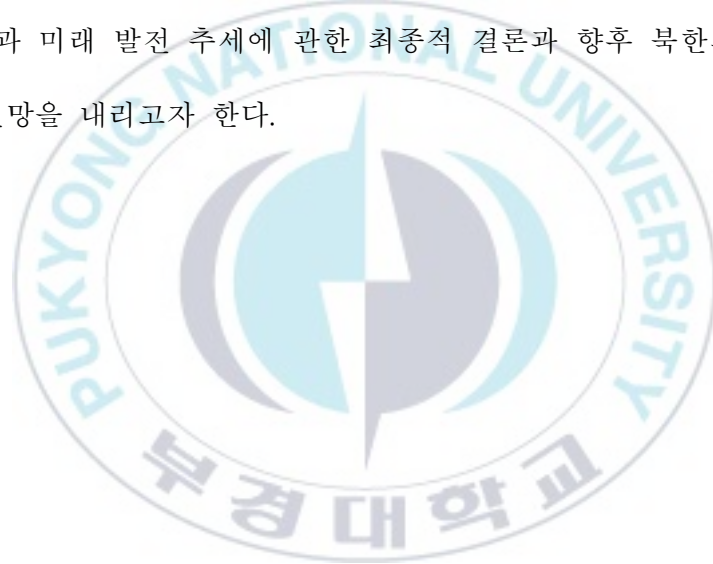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은 논문의 서론으로 기본적으로 연구목적, 연구대상, 정치엘리트의 분석과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정치엘리트에 대한 접근방법 및 연구범위 등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써 정치엘리트의 일반적 개념을 검토하고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다만 일반적 개념의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정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의 중앙 기관이다. 위원은 조선로동당 대회 또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이어 제3장은 김일성 정권 아래 나타나는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유동적 변화를 탐구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적인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은 김정일 정권부터 김정은 후계체제까지 엘리트의 집단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이런 변화의 대내외적인 영향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진행될 내용 분석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초기부터 김정일의 사망을 걸쳐서 김정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세대교체에 따른 북한 정치 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논문의 분석틀의 결과를 정리하여 북한의 세대별 엘리트 특성과 미래 발전 추세에 관한 최종적 결론과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리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치엘리트의 개념과 의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막론하고 정치엘리트는 보편적으로 정치적인 권력 및 발언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수 집단으로 정의되며, 이들 엘리트는 통상 인민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엘리트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19세기 이탈리아 정치이론가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엘리트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치에 직접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엘리트 집단을 구분해서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라 구분하였다. 밀스(C. M. Mills)는 '정치적 권력 또는 사회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배집단'을 파워엘리트라 주장하였다. 또, 로버트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은 엘리트론을 합의적인 엘리트와 경쟁적인 엘리트, 연합적인 엘리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3개 유형의 엘리트 구분은 각각 공산주의, 안정된 민주주의 및 다민족 체제에 대해 대응하고 서로 관련되어있다.

한편, 하이글리 및 버튼(John Higley & Michael Burton)은 정치엘리트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 사회 또는 다른 권력 기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핵심적인 직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주도적으로 각종 정치 활동의 전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¹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치엘리트 집단의 유형은 ‘합의적으로 집합된’ 엘리트, ‘분열된’ 엘리트,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된’ 엘리트로 분류하였다¹⁵⁾.

한국에서의 정치엘리트에 대한 정의는 서구의 학자들이 내린 정의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먼저 김구섭은 권력 엘리트에 대해 권력의 자원을 기반으로 정치적 지위를 얻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 사회에서 상대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수의 지배자 집단¹⁶⁾이라 정의했다. 더욱이 전병곤, 홍우택, 이기현, 신중호, 양갑용 등의 경우 ‘정치 엘리트라는 것은 국가의 각종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의 핵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¹⁷⁾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고창준 역시 “엘리트(elite)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라 정의했다.¹⁸⁾

2. 북한 체제의 정치엘리트

가. 북한 엘리트의 이념적 기반

14) 양성철, 『北韓政治研究』(서울: 박영사, 1995), p. 24.

15) John Higley; Michael Burton, *"Elite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Elite Transformation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16) 김구섭 외, 『북한의 권력 구조와 권력 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 235.

17)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98.

18)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pp. 32-35 .

이 연구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먼저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나 특정한 국가의 노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차용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정치엘리트가 각종 기관에서 직위를 겸직하는 것을 통해 고도로 집중화되는 통치체제를 유지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노동당과 군부 등의 여러 기관에서 요직을 점하는 인물들은 정치엘리트라고 일관하게 인정되며 최고지도자의 측근 세력을 포함한 일군도 일반적으로 북한의 정치엘리트라고 간주한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반동적 부르주아 사회학설에서 ‘선발된 인물’이라는 의미로 이르는 말”로, 엘리트 이론은 “착취사회의 계급구조를 ‘지도능력’을 보유한 ‘엘리트’와 ‘수동적 인민 대중’의 관계”¹⁹⁾라 부정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엘리트를 자본주의 체제의 통치수단이라 인식하여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엘리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경우 ‘엘리트’를 대신하여 ‘간부’라는 칭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과거 중국 혁명 시기로부터 사용되어 왔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엘리트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된 ‘干部’를 조선어로 번역한 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상술한 내용에 따라 북한에서 어휘로서 ‘간부’는 좁은 의미에서 “당과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 일군,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 ·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 정의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조직체나 기관, 집단 등에서 일하는 일군”으로 정

19)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57.

의²⁰⁾된다.

나. 북한 엘리트의 제도적 기반

북한의 정치 엘리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엘리트의 제도적 기반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당’의 핵심개념은 공산당이 유일한 영도적 정당으로 정례적인 선거경쟁에서 도전을 받지 않는 권력 핵심 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당 중심의 전형적인 일당제 국가이다. 또 북한에 있어서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장기적인 일인 독재체제로 나타난 ‘수령, 당, 국민’이라는 삼위일체이다. 북한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지도권이 정당화 및 합법화되는 근거이다. 이에 대해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노동당이 각각 다른 권력 기관을 모두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표방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이미 국가의 최고지도자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노동당은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한다. 이는 노동당의 간부가 다른 분야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 기관 산하 각종 부서에 대한 감독이나 견제를 노동당 내 상응하는 부서의 설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직위의 중첩현상 또는 엘리트의 융합체제라 한다. 엘리트 융합체제는 원천적으로 당-국가체제의 구조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당 내부에는 당 중앙위원회 외에도 군사 분야를

20)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229.

통제하기 위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여 군사적 정책을 직접 통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권력 구조는 노동당의 고도 집중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역할은 노동당이 이미 하달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에서 노동당은 막대한 정치적 지지기반과 함께 법적으로도 군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전반의 통제를 명시해 두고 있다. 당·군·정이 가장 핵심적인 체제가 되는 북한에서 노동당 이외의 권력 기구에서 정치엘리트가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당에 소속된 정치엘리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 엘리트의 도출

본 논문은 분석대상을 시기별로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는 각각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집권 시대이다. 이러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누구를 북한의 정치 엘리트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공식적인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회가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²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당 당 대회는 노동당 중앙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정책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형식적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 정치 엘리트는 원천적으로 가장 중추적인 기관인 노동당 내부에서 중앙지도층이

21)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당이 국가보다 상위적 위치에 있다. 북한의 경우 국가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보다 당의 규약인 <조선로동당규약>이 더 우선시되며, 조선인민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이라는 당의 군대다. 북한에서는 당≥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의 당 대회는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전략·전술에 있어 기본 문제 토의 결정, 당 총비서 추대 등을 진행하는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되는 중앙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북한 정치엘리트에 대하여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엘리트의 개별적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적 속성에는 성별, 생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사회적 배경이 되는 교육 배경, 소득 수준, 직업 종류, 사회경력, 출신과 성장지역, 종교적 성향, 출신성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의 전문분야, 출생 연도, 출생지역, 학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엘리트의 속성과 관련된 자료는 조선일보 『인물 DB』²²⁾,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²³⁾, 북한정보포털 『정치, 정치이념, 정치체제, 권력 기구』²⁴⁾, 국가정보원 『대북정보』²⁵⁾, 서울신문²⁶⁾, 연합뉴스, 북한 포털 『인물』²⁷⁾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그들의 가능한 모든 개별 속성을 최대한 정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22) 조선일보 『인물 DB』, <http://db.chosun.com/people/index.html>

23)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nkp/search/sna/UniKoreaSna.do?nkpmno=897>

24) 북한정보포털 『정치, 정치이념, 정치체제, 권력 기구』
<http://nkinfo.unikorea.go.kr/nkp/submain/portalSubMain.do?subMainId=POLITC>

25) 국가정보원 『대북정보』, http://www.nis.go.kr/AF/1_2.do

26)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27) 북한 포털 『인물』, <http://www.yonhapnews.co.kr/nk/4811000000.html>

Ⅲ. 김일성 시대 정치엘리트의 특징

북한 노동당 당 대회²⁸⁾는 5년마다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사적으로 1946년 제1차 당 대회의 개최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즉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등)와 함께 노동당 당 규약의 개정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었으며,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와 정치위원회의 정치국으로 개칭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노동당의 핵심 지도부에 해당되는 엘리트의 재편이 진행되어,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은 모두 145명이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의 경력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실현하지 못했다.

1. 전문분야 분석

1980년 제 6 차 당 대회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전체 120명 가운데 47명으로 39.2%의 비

28)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 이후 이 대회에 최초로 자신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당 대회와 당 창건 35돌을 계기로 처음으로 평양시 1백만 근로자들의 시위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정일 혁명역사강좌』 168회, 평양방송, 1997.11.18.

율을 나타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 22명의 중앙위원이 행정부와 최고인민회의·군부의 직위를 겸직하여 18.3%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나아가 최고인민회의·행정부에서 요직을 점하는 엘리트의 비율은 120명 중에서 18명으로 전체의 15.0%에 달했다. 이외의 다른 중앙위원의 경우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군부, 행정부·군부의 직위를 겸직한 인원으로서 각각 5명, 4명, 3명이었으며, 전체 대비 4.2%, 3.3%, 2.5%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엘리트들은 군 출신이 120명 가운데 34명을 차지하여 28.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 출신의 경우, 행정부나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기관에서 직함을 동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34명 가운데 30명에 달했으며 그 비율은 88.2%였다.

<표-1>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소속	숫자	비율(%)
최고인민회의	47	39.2%
행정부	22	18.3%
군부	4	3.3%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5	4.2%
최고인민회의·행정부	18	15.0%
최고인민회의·군부	22	18.3%
행정부·군부	3	2.5%
미상	25	-
계	145	100

출처: 조선일보 『인물 DB』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김일성 정권 초기 북한의 정치엘리트는 대부분 항일 해방투쟁과 한국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군인이었다. 북한에서 군부 엘리트가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독특한 현상이 중앙위에서의 군 출신 인물 비중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노동당이 군부와 정부

기관을 통제하는 당-국가체제가 일관하게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동당의 각 정부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는 엘리트들의 직위 중첩, 즉 노동당 당내 엘리트의 국가 행정기관 또는 군부 부서의 직위 점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하는 가운데 북한식 당-국가체제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포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연령별 분석

김일성 시대 당시 북한 정치엘리트의 연령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50대가 전체 108명 가운데 55명을 차지하여 50.92%의 비율을 보였다. 50대를 뒤이어 30명의 60대가 중앙위원에 선출되어 전체의 27.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뒤를 70대와 80대가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약 12%에 달했다.

<표-2>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비율(%)
30대	1	0.93
40대	9	8.33
50대	55	50.92
60대	30	27.78
70대	12	11.11
80대	1	0.93
미상	37	-
계	145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사회주의 국가들은 건국 초기 일반적으로 혁명운동자들이 정치 엘리트를

구성한다.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김일성을 비롯한 혁명 간부들은 정치엘리트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 거의 30년 동안 북한의 정치과정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여러 가지 파벌로 나뉘어 각 파벌 간의 권력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나서 21살의 나이로 항일운동에 참여하는데, 소위 빨치산파의 대부분이 김일성과 비슷한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등장한 엘리트들은 전쟁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의 연령이 좀 더 젊은 연령대에 있다. 따라서,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연령 역시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출신 지역별 분석

김일성 시대 북한 정치엘리트를 출신 지역별로 분류하면, 량강도를 포함한 함경도 지역 출신이 53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뒤이어서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출신과 중국 출신이 26명과 12명으로 각각 24.7%와 11.4%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지역의 분포는 앞서 언급된 지역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표-3>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출신 지역별 분포

출신 지역	빈도	비율(%)
중국	12	11.4
강원도	3	2.9
러시아	2	1.9
량강도	3	2.9
남한	3	2.9
평안도	22	20.9
평양	4	3.8
함경도	50	47.6
황해도	6	5.7
미상	40	-
계	145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지역별 분포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각 지역의 인구점유율과 엘리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통일부·북한정보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 지역별 인구 분포에서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는 전체인구의 40%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부내륙지방인 자강도와 양강도는 8.7%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⁹⁾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을 때, 총인구의 61%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평양과 남포를 비롯한 평안도가 엘리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불균형적인 인구 분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함경도 출신의 비율이 지역별 인구와 비교하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 지방이 가진 역사적·지역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함경도 등 주변 지역은 항일빨치산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연합

29) 북한정보포털. 『사회. 인구』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00>.

30) 북한정보포털. 『사회. 인구』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00>.

군의 점령을 받지 않아 비교적 순수성이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엘리트들의 진입에 더욱 우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³¹⁾ 이와 유사하게 김일성 시대 중국 지역 출신의 높은 비율은 북한의 정치엘리트 가운데 빨치산 계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4. 학력별 분석

김일성 시대 정치엘리트의 학력별 분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표-4>를 살펴보면 엘리트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87명 가운데 67명이 유학을 경험하여 77.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뒤이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종합군사대학교) 출신 또는 만·김 출신이 각각 4명을 차지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p. 74.

<표-4>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출신학교	숫자	비율(%)
유학	67	77.0
만경대혁명학원	4	4.6
김일성종합대학·군사대학교	4	4.6
만·김	4	4.6
기타	8	9.2
미상	58	-
계	145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에 북한의 정치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개교하였으며, 1948년에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혁명유자녀학원을 개교하여,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활동을 하던 소위 ‘혁명가’의 자녀나 친척을 교육한다. 또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및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등 지휘관 양성 기관은 고위 군부 엘리트의 재교육을 위해 창건되었다.

전문에 이미 분석된 바와 같이 1980년에 선출된 중앙위원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또는 60대에 해당하였고, 그들이 교육받았던 시기는 1940-1950년대에 해당한다. 1940년에서 1950년까지 북한의 해외 유학 관계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표-5> 1940-195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시기	주요 일자
1946	소련에 250여 명의 대학생 파견, 공산주의 이론과 기술자 양성이 주목적임.
1947	인문교육(문화· 법학· 고고학 등) 분야 전공자 파견
1948	사회주의국가건설에 필요한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기계· 전기· 광산· 건축· 의학 분야의 유학생 파견.
1950	6·25 동란 중 약 2000여 명의 고위층 자녀들과 일부 전쟁고아들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에 유학.
1957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태 발생으로 유학생들을 거의 모두 소환함. 한편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자력갱생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자 이색분자로 낙인을 찍어 감시, 유학생 파견에 신중히 처리함.

출처 :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337

<표-5>에 따르면, 1957년 북한은 유학생 파견에 대하여 신중하게 취급하였지만, 그 이전인 1940-1950년대에는 유학생의 해외파견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1940-1950년 당시 북한이 항일전쟁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교육기관과 체제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엘리트 현상

<표-5>에 의하면 2010년까지 당 중앙위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2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제6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145명 가운데 사망한 72명을 제외한 73명 중 12명이 2010년까

지 여전히 노동당 중앙위원의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황순희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좌천되었다. 이외에 나머지 탈락자는 일부 직위의 변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임이나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6> 2010년 제3차 당 대회까지 엘리트의 현황

	2010년 중앙위 원 유임	2010년 중앙위원 해임	2010년까 지 사망 확인	소계	자료 미상	계
숫자	12	22	72	106	39	145
비율(%)	8.3	15.1	49.7	73.1	26.9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자료의 미비로 사망한 엘리트 가운데 숙청과 강등을 자세히 분류할 수 없었지만 1994년 김일성의 사망까지 노동당 중앙위원들의 숙청 및 강등 상황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1994년까지 부분 정치엘리트의 숙청과 강등
자료**

시기	주요 내용
1983	김병하(국가안전보위부장) 숙청
1990	김정일의 계모 김성애와 그 자녀 등 세력 숙청
1992	소련에 유학을 다녀온 군부 엘리트 20여 명 숙청

출처: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pp. 113-128.

종합하여 보면, 최종 유임 비율은 8.3%에 불과하지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30년을 지났으며, 이 비율만 강조하여 최종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김정일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권력 이양을 위해 북한 권력 기관의 인물 이동은 대규모 숙청을 통해 일찍부터 진행되었으며, 엘리트의 대폭 개편을 통한 세습체제의 법적·제도적 보강이 함께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북한 건국 초기에는 정치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 당사자의 출신 계급이 중요시되어 노동자계급과 고농·빈농 출신이 우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건국 초기 북한에 있어서 노동당 사업 및 국가 기초건설에서 노동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토대가 되었고 국가의 주력군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개인적 경향에 따라 인텔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엘리트에 대한 경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건국 초기로부터 북한 국내에서 치열한 파벌투쟁을 겪으면서 최종의 승리자가 된 김일성은 전문적 지식을 갖는 엘리트의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지속해서 품고 이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김일성 정권 초기 구소련이나 해외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유학 경험이 있던 인텔리가 일부 중용되었지만, 노동자계급이 엘리트 집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혁명적 의식은 높았지만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국가전략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VI. 김정일 시대 북한 엘리트의 특성

김일성의 사망을 비롯하여 새롭게 나타나던 내외적 요소는 노동당의 정상적인 운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노동당은 법적으로 여전히 정국운영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당의 활동으로 요구된 인적 및 물질적 기반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³²⁾. 1980년에서 2010년까지 북한 정치엘리트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른 세대교체이다. 전체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정치엘리트의 구조는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치엘리트의 변동은 새 지도자인 김정일의 등장으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둘째, 내외적 사회변동이다. 199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변동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엘리트들의 부상은 사회발전의 필연적 요구가 따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28일에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 회의가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66년 이후 44년 만에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의 선거’를 주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 전문분야 분석

김정일 시대 북한 엘리트의 전문분야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군 출신 엘리트의 부상이다. 단순히 군부에 속하는 엘리트들은 전체 110명 가운

32)한승호, "김정일 시대 통치엘리트 성향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p. 11

데 6명으로 전체의 4.8%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최고인민회의·군부 및 행정부·군부 등 주요기관의 직위를 겸직하는 군부 인사의 비중은 각각 전체의 4.8%, 26.6%, 4.0%에 달했다. 군부 출신 엘리트가 전체의 40.2%를 차지하며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최고인민회의에 속한 엘리트의 비중은 김일성 시대에 39.2%를 차지하였지만,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32.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고인민회의와 행정부의 직위를 겸직한 비중 역시 10.5%를 기록하여 김일성 시대의 15.0%에 비해서 그 비중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엘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일성 시대의 18.3%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김정일 시대에는 5.6%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며 급속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엘리트에 있어서 군사 분야의 엘리트가 대폭 증가한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표-8>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소속	숫자	비율(%)
최고인민회의	40	32.3%
행정부	7	5.6%
군부	6	4.8%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6	4.8%
최고인민회의·행정부	13	10.5%
최고인민회의·군부	33	26.6%
행정부·군부	5	4.0%
미상	14	-
계	124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하였다. 1995년 이후 식량배급체

계는 전반적으로 붕괴하였고 북한의 재정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50% 수준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계획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중단되었으며, 기업 부진으로 시민은 생계마저 지속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른다. 더군다나 사회주의권 국가의 거둬드는 붕괴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등 외적 요인 이외에도 1995년-1997년 사이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 전염병이 북한 국내에서 확산되어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북한에 있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시기였다. 당초 북한에서 노동당은 권력의 핵심으로 작동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은 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군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게 된다. 이른바 ‘선군정치’가 등장한 것이다. 최초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당시 19명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들의 병사, 퇴임 등으로 인원이 계속 줄어든 가운데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³³⁾ 이는 2010년 초에 이르러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6명까지 감소하여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를 통해 19명의 군부 핵심 인물들이 충원된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10년대에 이르러 북한 정치 엘리트 가운데 군 출신 엘리트의 포진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로 구성된 정치적 배경과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출신 엘리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엘리트 구조는 실제로는 김일성 시대에 구축한 혁명가 중심으로 된 정치엘리트 체제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33)이장한, “북한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통일정책연구, 2017), pp. 54-67.

2. 연령별 분석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엘리트의 연령대 분포를 볼 때, 먼저 20대에 속한 엘리트는 전체 103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하며, 그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었다. 또한 50대에 해당된 엘리트는 전체 103명 가운데 9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 반면 60대, 70대 80대 및 90대가 각각 36.9%, 28.2%, 22.3% 및 2.9%를 차지하여 전체 정치엘리트의 90.3%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표-9>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비율(%)
20대	1	1.0
50대	9	8.7
60대	38	36.9
70대	29	28.2
80대	23	22.3
90대	3	2.9
미상	21	-
계	124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북한은 중국처럼 정치엘리트에 있어서 ‘정년제’를 채택하지 않아 엘리트의 숙청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원로 엘리트들이 정권에 충성심이나 성실성을 인정을 받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현직을 계속 담당하여 대를 이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김정일 역시 원로 엘리트들을 특별히 우대하여 빨치산 혁명 간부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도 그들의 지

위를 보장하여 줬다. 예를 들어 오진우의 경우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군 총정치국장 등으로 1995년 사망할 때까지 당과 군 분야에서 중요한 직위를 유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³⁴⁾. 또한 빨치산 1세대인 조명록은 건국 공신으로 2010년 사망할 때까지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 총정치국장 등을 역임하며 권력 중심에 서 있었다³⁵⁾. 게다가 김기남의 경우 80대의 고령에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겸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오극렬의 경우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³⁶⁾. 이들은 2010년 기준의 분석에서 원로 엘리트의 연령은 대체 80대와 90대 사이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후에 노동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 등 권력 기구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 중앙위의 위상 하락은 전원회의의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의 당 규약에 의하면 전원회의를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전원회의의 개최 횟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 노동당 비서국의 비서 인원 역시 줄어드는데, 공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인명을 미루는 대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부서의 부장이나 부부장에게 직접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통치를 진행한다. 당 중앙위가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34) "오진우,"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8.1.19).

35) "조명록,"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7.19).

36) "김기남, 오극렬,"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7.19).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 엘리트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90.3%쯤에 달했다는 사실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엘리트의 연속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출신 지역별 분석

김정일 시대 정치 엘리트는 확인이 가능한 80명 가운데 38명이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출신으로 확인되어 4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안도를 뒤이어 28명이 량강도를 포함한 함경도 출신의 확인되어 약 35.0%를 차지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출신의 정치엘리트의 비율이 1명으로 나타나 1.25%를 차지하였다. 이는 김일성 시대에 11.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표-10>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출신 지역별 분포

출신 지역	빈도	비율(%)
중국	1	1.25
강원	4	5.0
자강도	3	3.75
남포	2	2.5
평안도	26	32.5
평양	12	15.0
함경도	23	28.75
량강도	5	6.25
황해도	4	5.0
미상	44	-
계	124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김정일 시기 수령 유일지도체제의 구축은 북한의 핵심적 국가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파벌 차단과 원로 우대정책이다. 김정일은 당내 파벌의 형성은 잠재적 위협으로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와 후계체제의 안정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집권 이후 파벌형성 차단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 엘리트의 충원과 승진 과정에서 널리 작용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의 추진으로 관련된 요구를 제출하였고 정책 결정 과정 또는 인사문제에서 친척, 친우, 동향, 동창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 관계에 따라 차별이나 우대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파벌이 형성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9조 7항). 이는 엘리트 충원에서 지역주의로 인한 인사변동이나 정책결정을 거의 전반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북한 정치엘리트에 있어서 함경도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당내 조직에서 함경도 출신의 엘리트들이 상당한 부분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 종파 투쟁’과 ‘종파 여독 청산’을 통해 많은 함경도 출신 엘리트가 숙청되어 이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지역적 연결로 인한 파벌주의에 대해 경계하게 된다.

4. 학력별 분석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엘리트의 학력별 출신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유학생의 급격한 쇠퇴와 만경대 혁명학원 및 김일성 종합대학(김일성 군사종합대학)과 빨치산 출신의 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이 가능한 75명 가운데 21명이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28.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김일성 시대에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비율이 77.0%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총

32명이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확인되어 전체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일성 시대의 13.8%와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기타 북한 국내 학교 출신 역시 김일성 시대에는 9.2%에 불과했지만,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는 29.33%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11> 2010년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출신학교	숫자	비율(%)
유학	21	28.0
만경대혁명학원	3	4.0
김일성종합대학·군사대학교	24	32.0
만·김	5	6.7
기타	22	29.33
미상	49	-
계	124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먼저, 중앙위원 가운데 항일빨치산 1세대와 2세대들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김정일, 김국태, 김기남, 김병률, 김영철, 김영춘, 김평해, 오극렬, 리영호, 리병철, 장성택, 최룡해 등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었다³⁷⁾. 앞서 언급한 김정일 시대 정치엘리트의 연령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까지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의 연령은 60-8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시기는 1950년에서 1970년까지에 해당한다.

37)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9.10)

**<표-12> 1950-197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시기	주요 활동
1957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태 발생으로 유학생들을 거의 모두 소환함. 한편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자력경쟁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자 이색분자로 낙인을 찍어 감시, 유학생 파견에 신중을 기함.
1960	유학생 해외 파견을 최대한 억제, 극히 제한된 인원만 선발, 파견함.
1970	빈번한 국제교류와 북한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필요성으로 폐쇄적 유학정책 탈피, 공산권, 비동맹권 및 서방권을 망라 유학생 파견

출처 :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337

<표-12>를 살펴보면 1950년대 말 북한은 해외 유학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한다. 1957년부터 북한은 유학생 파견에 대한 태도가 전환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 이르러서는 유학생 해외 파견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극히 제한된 인원만을 선발하여 해외로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김정일 시대 북한 중앙위원 가운데 해외유학생 비율을 대폭 줄여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등장 이후 군의 위상은 이전과 비교하여 높아졌다. 그러나 군부는 정권의 유지에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고 경제발전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김정일도 점차 인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당 정치엘리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강조하여 간부 정책에서 전문성에 대한 강조된다. 특히 간부의 충원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기본적인 학력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북한에서는 ‘정년제’를 채택하지 않아 엘리트의 순환보직을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직업에 배치되면 평생 같은 직장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전공지식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 엘리트 정책에서 중요한 특징은 엘리트들이 특정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전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기능과 실력을 최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 시대 북한 엘리트의 보편적인 학력 제고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보면, 당시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교육보다 실용적 교육체제를 촉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북한 정치엘리트 가운데 기술 관료의 부상과 이에 따른 정치엘리트의 보편적인 학력 향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실용적 성향을 가진 기술형 엘리트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기술형 엘리트들의 등장과 과거 이데올로기만 중요시한 혁명적 엘리트들의 대체는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엘리트의 세대교체

<표 1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 제6차 노동당 전원회의로부터 2010년 제3차 노동당 당 대회까지 사이의 30년 동안 1980년에 선출되었던 노동당 중앙위원 대부분이 연만으로 인하여 2010년 제3차 당 대회의 개최하기 전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인원 개편은 큰 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13> 김정일 시대 노동당 중앙위원 교체 현상

	2016년 당 대회까지 사망 확인	2016년까 지 해임	2016년까 지 유임	자료 미상	계
숫자	22	38	54	10	124
비율(%)	17.74	30.65	43.55	8.06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표-14> 1994년~2010년 노동당 중앙위원 숙청 상황

시기	사건
1997	서관희, 김만금, 문성술, 서윤석 등(‘심화조 사건’ 대형 간첩단)으로 숙청
1998	최룡해(뇌물수수료)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로 좌천
2009.2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
2009.2	오극렬 당 작전부장에서 국방위 부위원 및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예우
2010.5	김일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에서도 해임

출처: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pp. 113-128.

<표-14>와 앞서 언급한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의 숙청 상황과 다른 문헌 등을 종합하면 김정일 집권 초 약 2천여 명의 엘리트가 숙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김정일 정권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 북한 고위 엘리트의 인사 변동에서 정치적 숙청이 점점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있어서 고난의 행군 및 정부 정책의 부진에 따라 소극적인 변화 역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소결

노동당의 위상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정치에 있어서 노동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후계자인 김정일과 그의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정치과정으로 전환되며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김정일 정권은 표면적으로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 통치를 지속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1998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른 시점에서부터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하였다. 당초 북한의 권력 구조는 노동당 정치국이 권력의 핵심위치를 점유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며 변화한다. 국내 경제적 정책의 실행이나 내각의 인사임명 등에 대해서 내각 전문부서들이 직접적인 결정이 이루어졌고, 정치국이나 전원회의 등은 내각의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정치방식을 나타냈다. 이런 과정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각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젊은 엘리트의 포진과 상대적으로 노동당 당 중앙위에서의 보수적인 인사 교체이다. 엘리트의 전문성 강화는 북한 경제가 막대한 도전을 맞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전문적인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외부 세계의 발전 추세를 따라가고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 역시 전문적인 정치 엘리트를 많이 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 전문성이 높은 실용적 정치 엘리트들이 과거 정치적 사상만을 중요시한 혁명적 엘리트를 점점 대체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따른 필연적 추세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는 당시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지지기반 역시 취약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당과 사회 전체가 군대의 당적 사업에 따라 배워야 한다는 통치이념을 제시하면서 군부를 체제운영의 선도적인

권력 기관으로 부상시켰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군대가 단순히 당의 지도를 받는 물리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당과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 사회주의를 움직여 나가는 중심적인 세력으로 부상하였다³⁸⁾. 이것은 북한 군부가 정치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활동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군인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서도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하여 행정부에서 직함을 점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³⁹⁾. 정리하면, 북한의 매우 기이한 정치체제는 김정일 시대에 접어들어 정치엘리트의 구조에서 변화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이런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북한의 정치엘리트 구성에 있어서 혁명 원로 세력을 포함한 엘리트들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의 정치적 사상 측면에서 보수파들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일의 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올라서며 국가 정책의 중심이 정치에서 경제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8)한승호, "김정일 시대 통치엘리트 성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p. 16.

39)한승호, "김정일 시대 통치엘리트 성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p. 15.

V. 김정은 시대 엘리트의 특성

김정은은 2016년에 개최된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동시에 각 당내 기관의 인사구성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제7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엘리트들을 살펴보면 당 중앙위의 규모는 김정일 시대의 124명에서 129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을 제1우위로 운영되는 권력 구조의 복원이 노동당 엘리트들의 권력 서열 재진출과 군부 엘리트 구조의 재편을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회의를 통하여 비서국의 폐지와 더불어 정무국이 신설되었으며, 비서국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직후 권력의 핵심은 다시 정치국으로 옮겨 왔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1. 전문분야 분석

북한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이면서,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표를 보면,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다수의 최고인민회의 소속 인사가 중앙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북한은 노동당, 군부 및 정부 부문의 엘리트들을 중복으로 배치함으로써 소위 융합체제를 구성했다. 김정은 시대 중앙위원의 전문분야를 파악했을 때, 먼저 확인 가능한 85명 가운데 35명이 최고인민회의에 속하여 41.2%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32.3%와

비교하여 큰 상승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할 사항으로 군 출신 엘리트의 분포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군부에 해당하는 엘리트의 비율과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최고인민회의·군부, 행정부·군부에 속하는 엘리트들의 비중은 모두 합쳐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김정일 정권에서 같은 구성의 비율이 40.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2016년의 경우 단순히 군부에서 겸직하는 엘리트는 14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고인민회의·군부, 행정부·군부 및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는 5명, 2명, 1명으로 각각 전체의 5.9%, 2.4%, 1.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5>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전문분야 분포

소속	숫자	비율(%)
최고인민회의	35	41.2%
행정부	20	23.5%
군부	14	16.5%
최고인민회의·행정부·군부	1	1.2%
최고인민회의·행정부	8	17.8%
최고인민회의·군부	5	5.9%
행정부·군부	2	2.4%
미상	44	-
계	129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는 북한 대내외적인 영향요소의 변화로 인해 엘리트 구성이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권력 구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노동당 기능의 복원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전 군에 당의 영도체계, 최고사령관이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부 기율을 철

저히 세워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⁴⁰⁾. 이러한 당-국가체제의 복원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등 노동당 조직 내의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핵심권력은 다시 노동당에 복귀하면서 정치 엘리트 역시 당에 집중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 김정은, 김영남과 황병서 외에도 박봉주와 최룡해의 진입으로 5명에 달했다. 그리고 정치국의 전체 위원들은 김기남, 김원홍, 김영철, 최태복, 리수용, 오수용, 곽범기, 리만건, 양형섭, 박영식, 리명수, 김평해, 로두철과 최부일 등 14명을 나열할 수 있다⁴¹⁾. 이들 가운데 김평해, 로두철과 최부일 등 3명이 기존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승진하였으며, 정치국 후보위원의 경우 조연준과 이영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새롭게 부상한 인물이었다⁴²⁾. 이는 김정일 시대에 당내 각 권력 기관의 지속적인 공백과 비교하면 노동당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치국의 구성에서 교체된 엘리트가 존재했지만, 그 변화의 범위는 넓지 않았다.

또한 노동당의 정상화에 따라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은 당 중앙군사위이다. 당 중앙군사위는 김정은의 부상 이후 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권력 기관으로 위상을 신속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을 폐지하고 중앙군사위를 직접 장관하였다. 한편 군 출신이 아닌

40) 박형중,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제50권 (2012), pp. 23-38.

41)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6.17)

42)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7.6.17)

박봉주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내각 총리란 직위를 동시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위까지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김정일 시대보다 분명히 강화되고 군사에 관한 당의 주요결정권을 쥔 국방위원회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군을 움직이는 최고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종합하면, 노동당 정치국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요직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시기 군 출신의 엘리트가 핵심 엘리트층에서 탈락하고 당이 군부에 대한 통제가 다시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연령별 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엘리트의 연령대 분포를 볼 때, 먼저 60대와 70대가 각각 29.73%로 전체 중앙위원의 절반을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80대와 90대의 비중은 확인이 가능한 70명 가운데 17명, 9명으로 각각 22.97%와 6.7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3)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과주: 한울, 2003), p. 208.

<표-16>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비율(%)
30대	2	2.70
50대	6	8.11
60대	22	29.73
70대	22	29.73
80대	17	22.97
90대	5	6.76
미상	55	-
계	129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역사적으로 보면,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일성에게서 권력을 넘겨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기는 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이다. 당시 김정일의 나이는 38세로 장년층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정은의 경우 후계자로 공식화된 시기가 제3차 당 대회로 그의 나이는 26세에 불과하여 김정일만큼의 정치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연상의 원로 정치 엘리트 보다 젊은 엘리트들을 중용하여 이들을 자신의 후원세력으로 이용하였다. 제7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가운데 혁명 빨치산 3세대는 김정은 하나였다. 즉 김일성 시대의 핵심 엘리트가 되었던 혁명 빨치산 세력이 핵심 권력층에서 점차 사라지고 대신 젊은 엘리트의 부상과 개혁형 정치 엘리트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원로 엘리트들을 특별히 우대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에서 김정일 시대의 원로는 대부분 실권이 없는 예우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또한 ‘국가전복음모행위’의 죄목으로 숙청을 당했으며 대부분의 원로들은 핵심요직에서 탈락하며 김정은의 측근세력으로 교체되었다.

3. 출신 지역별 분석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정치 엘리트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면, 먼저 확인 가능한 51명 가운데 22명이 량강도를 비롯한 함경도 출신으로 나타나 4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을 포함한 평안도 출신의 비율은 이보다 적은 18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이다.

<표-17>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지역별 분포

출신 지역	빈도	비율(%)
중국	1	2.0
자강도	2	3.9
남포	4	7.85
량강도	2	3.9
함경도	20	39.2
평양	7	13.7
평안도	11	21.6
황해도	4	7.85
미상	78	-
계	129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4. 학력별 분석

2016년 제7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학력을 분석하면, 자료의 부족으로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도

유학 비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군사)대학 이외 다른 교육기관 출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유학생 비율은 26.2%로 이전의 김정일 시대에서 2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군사)대학 출신의 경우 두 학교 출신을 합쳐서 40.5%로 나타냈는데, 이 역시 김정일 시대의 42.7%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모습이다. 반면 북한 국내에 있어서 다른 교육기관 출신들의 비율은 33.3%로 김정일 시대에 기록한 29.33%와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미상의 엘리트들이 대부분 새롭게 등장한 인사이기 때문에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치가 변화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18> 2016년 노동당 중앙위원의 학력별 분포

출신학교	숫자	비율(%)
유학	11	26.2
만경대혁명학원	3	7.1
김일성종합대학·군사대학교	12	28.6
만·김	2	4.8
기타	14	33.3
미상	87	-
계	129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미 언급한 대로 2016년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60대-80대에 속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들이 교육받았던 시기는 보편적으로 1950-1980년에 해당한다.

<표-19>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경제건설과 과학기술교육의 필요성으로 북한은 다시 공산권, 비-동맹권 및 서구권으로 유학생 파견을 폭넓게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정치 엘리트들에 관한 자료가 보완된다면, 유학생 비율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표-19> 1950-1970년대 북한 해외 유학 관련 사건
주요 일자**

시기	주요 사건
1957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태 발생으로 유학생들을 거의 모두 소환함. 한편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자력갱생의 경제 시책에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자 이색분자로 낙인을 찍어 감시, 유학생 파견에 신중히 처리함.
1960	유학생 해외 파견을 최대한 억제, 극히 제한된 인원만 선발, 파견함.
1970	빈번한 국제교류와 북한 국내 과학기술교육의 필요성으로 폐쇄적 유학정책 탈피, 공산권, 비동맹권 및 서방권을 망라 폭넓은 유학생 파견
1980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에 필요한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자를 서구 등지에 파견 선진기술습득에 주력함.

출처 :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337

5. 엘리트의 세대교체

<표 19>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3차 노동당 당 대회로부터 2016년 제7차 노동당 전회회의까지 7년을 동안 2010년에 선출되었던 노동당 중앙위원들이 유임된 비율은 단 37.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인사변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0> 김정은 시대 노동당 중앙위원의 교체 현황

	2016까지 유임	2차 유임	신규 충원	계
숫자	48	6	75	129
비율(%)	37.2	4.7	58.1	100

출처: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표-20>과 결합해 보면, 김정은의 지속적인 공포정치는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권력 전반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은은 선군정치로 인하여 확대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군의 권력을 약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 엘리트들은 극적으로 퇴진했으며 반면 당과 보안계통에 해당하는 정치 엘리트이 부상한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영호로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인민군 총참모장 등의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15일 돌연 모든 직책에서 탈락하게 된다⁴⁴⁾. 이에 대해 정성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 엘리트의 세대교체가 "무엇보다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 시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남발되었던 고령의 군 장성들을 대거 퇴단시킴으로써 북한군의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훈련강화와 계급강등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군사기강을 다시 확립해 나가려고 했을 것이다."⁴⁵⁾라 평가한다. 즉,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정상화가 체제의 안정을 위한 효율성이 높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44) "이영호,"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8.1.19)

45)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군부 엘리트 변동 원인", 『세종논평』 300호(세종연구소, 2015).

<표-21> 2016년까지 부분 엘리트의 숙청 현황

시기	숙청 상황
2011.3	주상성(인민보안부장) 만경대 생가 훼손 사건으로 처형
2011.6	홍석형(당 경제비서) 정책 비관으로 숙청
2012.4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좌천
2012.7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 권력 갈등설로 숙청
2013.5	현영철(총참모장) 보직 조정으로 좌천
2013	전병호 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에서 내각 정치국장 좌천
2013.1 2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 불경죄로 처형, 장성택 측근인 리용하, 장수길 등 공개 처형(고사기관총)
2014.4	최룡해(총정치국장) 정치사업 소홀로 좌천
2014.6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전임: 장정남)으로 교체
2014.9	당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부부장급 이하 간부 20여 명 반당종파 행위 및 부패혐의로 처형
2014.1 0	중앙당 3명과 그 부하 7명 등이 평양교의 강진종합군관 학교에서 총살(김정은 지시, 방침 관철 사업 소홀, 비밀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2014	핵심엘리트 50여 명 처형(죄목 미상)
2015	변인선(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정은 명령 위배로 총살
2015.4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불경죄(사석에서 김정은 비판, 김정은 참석 회의에서 졸음)로 처형(고사기관총)
2016.7	김용진(내각 부총리) 반역 및 회의지시 불량으로 총살

출처 :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p. 113-128.

6. 소결

김정일의 사망으로부터 2016년 북한 제7차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김정은 정권은 권력을 공고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이 시기에 권력의 핵심층으로 부상한 엘리트는 김정은의 향후 정책변화와 북한 체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노동당을 매우 중시하고 노동당 내부에 대폭적인 인사변동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또 김정은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과 같은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권력 엘리트들을 감시함으로써 내부 파벌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런 현상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아직 지지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독점적인 엘리트 구조보다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정치엘리트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를 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시대 엘리트의 구성 및 성격의 변화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군부 엘리트가 후퇴하고 대신에 당과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엘리트들이 점차 권력의 핵심 지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점은 김정은 시대 정치엘리트의 변화가 가장 폭넓게 진행된 곳 역시 군부이다.

김정은 시대 엘리트의 충원에서도 기술 관료의 부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희관은 김정은 시대의 정치엘리트 양상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에는 실무 하위급 엘리트들 수준에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수행자들도 50%가량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⁴⁶⁾ 전문적 엘리트 집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로두철, 곽범기 등의 부상은 김정은 시대 신진 엘리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박도춘, 주규창은 당 중앙위 기계공업부장에서 물러났고, 김춘섭이 당 중앙위 기계공업부장으로, 홍영철, 홍승무, 강관일이 당 중앙위 기계공업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⁴⁷⁾. 이러한 제7차 당 대회 결과를 보면, 기술형 정치엘리트들이 당내에 많이 편입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6)진희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변동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31집 4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p. 109.

47)최선영, “북한, 핵실험·로켓 개발 담당 핵심간부 세대교체,” 『연합뉴스』 (2015).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초기 권력 승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이란 과제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에 대한 통제는 철저하지 못했으며 당내 엘리트들의 변화는 현저하지 않았다. 이후 2~3년이 지나서야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숙청을 통한 권력 장악에 나서기 시작했다. 결국 김정은은 집권 4년 이후 각 국가기관에서 엘리트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권력 전반의 장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엘리트들의 교체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연적 원인도 있다. 원로들의 노화와 사망이 바로 그것이다. 김경훈은 이에 대하여 "당 정치 부활과 당의 군 통제 강화, 권력 엘리트의 인적구성이 김일성종합대와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권력의 핵심에 서 있다는 점, 로열패밀리의 견재함과 원로그룹의 쇠퇴를 그 특징으로 한다."라고 평가했다.⁴⁸⁾

48) 김경훈, "김정은 체제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 2015), p. 65.

VI. 북한 세대별 정치엘리트의 변화 및 전망

1. 북한 엘리트의 특성 및 변화 추이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엘리트 구조 내부에서 국가와 정권의 세대 변화와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경향 및 국가의 대내외적인 입장에 따라 신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 국내에 정치엘리트의 교체 과정은 시간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는 자신의 약한 지지기반과 부족한 리더십을 ‘유훈 통치’에 의존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북한에 있어 정치엘리트의 인사변동이나 권력 기구의 형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랬듯이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부상한 이후에서처럼 김정은 역시 향후 국가의 발전노선에 대한 개인적인 청사진과 희생, 노력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 및 국가의 발전 배경을 고려하면, 정권의 안정화와 체제의 유지를 위한 권력 구조의 변화와 정치 엘리트의 유동적인 변화에는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젊은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 진보·개방적 엘리트의 부상이다. 김일성 정권 아래 핵심 정치 엘리트 세력이 되었던 북한의 혁명 1·2세대들은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김정일 시대에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혁명 3·4세대 역시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

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5·60대에 해당하는 엘리트가 핵심 엘리트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고령 엘리트에 대한 신진 젊은 엘리트로의 대폭적인 세대교체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둘째, 자신들의 독특한 정치체제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하여 북한 역시 정치 엘리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항일 투쟁과 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혁명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빈농이나 저임금 노동자 계급에 속했는데, 이들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제 그들이 점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대신에 대학 출신 등의 높은 학력과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한 정치 엘리트들이 다수가 되고 권력 구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노동당의 경우 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졸업한 정치엘리트들로 대폭 충원되었고, 군부 역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정치엘리트들이 보편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받고 노동당 혹은 다른 핵심 국가기관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김정은 시대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당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선출된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만을 보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이 노동당 내부에 집중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시대 엘리트의 응집력은 김정일 시대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이 권력의 장악 과정에서 고위 엘리트의 반발을 정권의 위협으로 여겨 엄격히 처벌하고, 리영호, 장성택 등 핵심 엘리트들을 숙청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정치를 단행하는 결과로 고위 엘리트들의 이탈 현상이 지속해서 초래하고 있다. 군부 역시 불만이 누적되어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나 군부와 노동당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였다. 이에 따라 권력 기

관 간에 치열한 경쟁과 각종 견제로 인해 권력 엘리트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커졌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런 경쟁과 충돌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권력 집단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엘리트의 집단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장악을 위하여 핵심엘리트 집단을 재편하였고 또 앞으로 정치엘리트를 문민화시킨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6.25 전쟁을 경험했던 혁명세력들이 쇠퇴하고 대학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엘리트들은 과거 북한의 사회형태 및 수령의 개인적 경향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격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빨치산 혁명 5·6 세대가 핵심 지도층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엘리트들의 성장기는 북한 경제의 호황기와 맞물려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 의식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신진 정치 엘리트들이 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등의 사실을 인지하며 내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핵심 지도층으로부터의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전망

본 연구에서는 정치엘리트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교체를 연구하였으며,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의 엘리트 변화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전망하자면 먼저, 북한체제의 경우

잠재적 불안정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폭발의 가능성 역시 여전하다. 앞서 설명한 북한 국내 권력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세력의 숙청, 엘리트의 해임이나 강등 등 인사변동은 정치 엘리트 간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앞으로 북한에서 각 권력 기관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엘리트들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할 것이며 권력 기관인 노동당, 군부 및 정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돌 가능성 역시 높게 예측된다.

또 김정은 시대의 목표와 노선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노동당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당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상화된 노동당의 역할은 지속해서 유지하면서 각 국가기관 및 부서들과 군부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정권 유지와 각 국가기관의 핵심 정치 엘리트 간 상호 감시 및 상호 견제를 통한 정권을 전반적인 장악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노동당의 하드파워 정비(즉 노동당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북한이 당의 소프트파워(즉 노동당 조직 성원들의 사상과 사업 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의 개선과 향후 새롭게 등장한 수령인 김정은의 ‘수령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한다. 이미 김정은은 북한 최고영도자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제도적 리더십을 확립해 왔으며 정권의 안정 및 권력의 확충을 위해 개인의 인격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향후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북한은 체제변화나 혹은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될 수 있다. 즉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고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7년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북한 제6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김일성 시대로,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를 김정일 시대, 2016년 제7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김정은 시대로 각각 설정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각각의 시대는 최고지도자의 세대교체 과정을 거쳤으며 약 36년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등장한 인물들은 북한의 정치 엘리트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을 되었다. 본 논문의 핵심 분석들은 세대별 정치 엘리트의 양상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엘리트의 시간적인 변화가 북한의 역사적인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런 변화들이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전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버트 달(Robert . Dahl), 조지프 쉘페터(Joseph Shumpeter), 알렌 포터(Allen Potter), 제임스 번햄(Burnham) 등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과 밀스(C. M. Mills)의 파워 엘리트 이론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하이글리와 버튼(John Higley & Michael Burton) 및 로버트 퍼트넘(Putnam) 등 엘리트 유형에 관한 이론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기존 문헌의 연구를 통해 북한 권력 구조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북한식 정치 엘리트를 도출하며 연구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앞선 제3장, 제4장과 제5장에서 각각 북한 정치 엘리트의 세대별 양상 및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일성 시기에는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겹집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이 노동당에서 집중되었다. 엘리트의 연령은 대체로 50대 이상이었으며, 대부분 노동자계급에 속하여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는 군 출신의 엘리트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직할 통치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엘리트들은 대체로 60대 이상에 속하였고 이들 가운데 유학 경험을 한 비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국내 교육기구 출신의 비율을 상승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국가발전의 필요에 따라 나타난 필연적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다시 강력한 당적 통제에 따라 군부 엘리트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동시에 신진 엘리트의 등장이 시작되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이미 밝혀진 데이터만으로도 북한 정치 엘리트 가운데 유학 경험 비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국내 교육기관 출신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선 제3장에서 제5장까지 진행한 북한의 세대별 시기별 특성의 분석에 의하여 더불어 북한 역대 최고지도자의 통치방식에 관한 자료와 결합하여 엘리트 변화의 근본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활용하여 대중통치 의식을 가져 보다 개방형 통치방식을 채택하였다. 파벌투쟁을 겪으며 김일성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공포통치를 전개하였고 이로써 정치 엘리트들의 응집력도 상대적으로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으로부터 승계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광폭 통치 및 측근 엘리트의 중용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당 중앙 위원회 등 같은 권력 기구가 점점 원로들의 예우 적 권력 기관으로 전환하는 양상이 띄었으며, 김정일의 측근 엘리트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아가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흡수하여 집권 초기 자신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 '유훈 통치'를 전개하였으며, 이후 권력 확보와 정권 유지를 위해 소위 '즉흥 통치' 및 공포정치를 전반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북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당·군·정의 역사적인 변화는 김일성 시대의 '당적 통제 강력'으로부터, 김정일 시대의 '당적 통제 느슨'을 걸쳤으며,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적 통제 복원'에 도달하였다는 결론을 내리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한계가 있다고 본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도출이 수령의 통치방식에 따라 시기별로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적 위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위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면 이 조직 밖에 소수 권력 보유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가졌다. 그리고 본 논문의 시간적 범위 측면에서, 먼저 1980년 제6차 노동당 전원회의의 개최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김일성은 노화하였고,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엘리트 구성은 김일성 시기보다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 회의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김정은 후계체제는 공인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대의 구별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정치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분석 측면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엘리트의 현직, 출신성분 및 성장기 경력 등만을 고려한 분석이 진행되었고, 이 엘리트들의 사회 연결 관계나 승진 관정 등에 대한 접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아직 실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분석과 접근이 가능한 자료에 따라 북한의 세대별 정치 엘리트의 양상 및 변화와 북한 권력 구조의 역사적 변화 내지는 북한 체제변화에 대한 전망을 실현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정도를 높이고 북한의 정치엘리트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이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저서

- 이정현, "북한 주요 인물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 : 김정일의 와병(臥病)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John Higley; Michael Burton, "*Elite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Elite Transformation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6).
- 간대욱,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 엘리트의 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2).
- 강영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국제정치, 2009).
- 고창준, "북한 권력 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2017).
- 김갑식, "김정일 시대 권력 엘리트 변화," 『통일과 평화』 제1권2호(2009).
- 김경훈, "김정은 체제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안보·북한학과 국방획득, 2015).
- 김경훈, "김정은 체제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 2015).
- 김구섭 외, 『북한의 권력 구조와 권력 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김발, "北韓의 政治엘리트 充員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990).
- 김성보, "북한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과 경력 분석-정권기관 간부를 중심으로 (1945-50)," 『동북아연구』 제3권(1997).
- 박형중,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제50권 (201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양성철, 『北韓政治研究』 (서울: 박영사, 1995).
-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과주: 한울, 2003).
- 이장한, "북한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통일정

- 책전공, 2017).
- 임정고, "北韓 權力엘리트構造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3).
- 전병곤 외,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 연구,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군부 엘리트 변동 원인", 『세종논평』 300호(세종연구소, 2015).
- 진덕규, "엘리트 정치이론," 진덕규(편), 『현대 정치학』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7).
- 진희관, "북한의 권력과 정치구조 ; 김정은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변동 연구-주요 인사의 노동신문 등장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2권(2015).
- 진희관, "김정은 정권의 권력 엘리트의 변동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31집 4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5).
- 최선영, "북한, 핵실험·로켓 개발 담당 핵심간부 세대교체," 『연합뉴스』 (2015).
- 한승호, "김정일 시대 통치엘리트 성향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 한승호, "김정일 시대 통치엘리트 성향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09).

2. 인터넷 자료

- "북한정보포털", <http://www.nis.go.kr>
- "빨치산과", <https://ko.wikipedia.org>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통일부 포털 『북한인물 알아보기』 ,
<http://nkinfo.unikorea.go.kr>
- "조선일보", <http://db.chosun.com>
- "통일부 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김정일 혁명역사강좌』 168회, 평양방송, 1997.11.18.(검색일 2017.5.12.)